

원어민 영어강사에 대한 대학생의 만족도 연구*

임정완
대구대학교

Lim, Jeongwan. (2012). University students' satisfaction and expectations about native English instructors. *Modern English Education*, 13(1), 263-280.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university students' satisfaction and expectations toward native English instructors. A total of 285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students had the experience of being taught English class by native English instructors. A questionnaire with 19 items was administered to the student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students wanted the native English instructors to have a more conversation oriented class and to consider students' proficiency level for teaching. The native English instructors were also asked to be more positive in understanding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According to the students' perspective, the lack of opportunity for oral communication between students and native English instructors was also found to be problematic in enhancing their English proficiency. Several other findings were discussed and pedagogical implications were suggested.

[native English instructors of university/university students/survey/satisfaction/
대학 원어민 영어강사/대학생/설문조사/만족도]

I. 서론

오늘날 영어가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국제어로 자리 잡게 되면서 영어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정보의 80% 이상이 영어로 저장되어 있고, 정보의 바다라고 일컬어지는 인터넷 정보의 95%가 영어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또한 세계의 정기 간행물의 70%정도가 영어로 출판되고 있으며, 해양과 항공에서의 공식 언어가 영어이다. 2015년까지 세계인구의 절반인 30억 정도가 영어를 사용할 것이라는 예측(Graddol, 2004)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영어가 세계어로 부상함에 따라 더 효과적인 영어교육 방법이 갈구되

* 본 논문은 2009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권의 경제적 성장과 함께 영어 원어민들은 영어 교사 자격 소유와는 무관하게 원어민 영어 강사의 직업²⁶⁴을 쉽사리 얻으며 영어교육에 투입되고 있다. 교육인적 자원 통계서비스에 따르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전체 원어민 영어강사가 3만 여명이고, 대학에서 영어교육을 담당하는 원어민 영어강사수도 2002년 1,387명에서 2006년 2,540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권미분, 2007). 이러한 흐름에 즈음하여 2007년 발표된 영어교육 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 영어교육 예산 682억 원 가운데 340억 원을 원어민 교사 채용에 사용하였으며 2010년까지 3600억 원을 투입하여 1학교 1원어민 교사 배치를 중점으로 2900여명의 원어민 교사가 전국적으로 채용되었다. 또한 2007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 국립 대학교의 기존 2명의 원어민 강사 외에 추가로 3-5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예산 면에서 획기적인 지원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현재 대학 영어 강의에 있어서 원어민 영어 강사의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그 중요도도 커지고 있으나, 실제로 대학에서 가르치는 원어민 영어 강사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의 연구의 대상은 1995년경부터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사업(English Program in Korea: EPIK)이 도입된 이래로 초등학교나 중등교육에서 원어민 교사의 역할을 다루는 것이 주된 흐름이었다(윤유진, 2008). 따라서 대학 수준에서 보다 효과적인 영어 교육을 위해 대학에서 영어를 강의하는 원어민 영어 강사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4년제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영어 학습 상황을 살펴보고 그들이 지니고 있는 원어민 영어강사에 대한 기대와 실제 수업 후 그들이 느꼈던 점들을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원어민을 활용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이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대학 현장에서 영어교육의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원어민 영어 강사의 정의

영어 원어민이란 영어권내에서 출생한 자로 어려서 제일 먼저 배운 언어가 영어 이어야 하고 타고난 수준의 영어 구사력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영어실력을 갖춘 자로 어떤 영어 표현이 옳고 그렇지 않고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직관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Medgyes, 1994). Richards와 Platt이 쓴 통뎀 응용영어학 사전은 영어 원어민을 ‘모국어로 영어를 쓰는 사람’ (p. 241)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모국어란 ‘자신이 속한 가족 내에서 쓰이는 언어로서 어릴 때 습득한 언어’ 또는 ‘자신이 살고 있는 국가의 공식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다시 정리해 보면 영어 원어민의 조건으로 언어습득시기와 출신국가를 설정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원어민 영어 강사란 우선적으로 영어 원어민이어야 하고 영어를 외국어로서 가르칠 수 있는 교육적 전문적 지식과 소양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학습자의 언어(한국어)와 문화(한국문화)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김순복, 199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원어민 영어 강사란 학습자의 모국어와 문화에 대한 사전지식이나 경험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면서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비원어민 강사에 비해 원어민 강사가 더 우수하다는 인식에는 원어민이 더 자연스러운 영어를 구사한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 즉, 원어민이 말하는 영어가 더 표준적이고 기준이 될 수 있는 영어라는 것이다. 그러나 영어권의 확대에 의해 영어의 표준이 명확하지 않게 되었고, 이는 어떤 영어를 쓰는 사람이 원어민인가에 대한 문제를 불러 일으켰다. Phillipson(1996)은 더 이상 이상적인 원어민 영어화자를 정의하는 것이 어렵다고 본다. 이상적인 원어민이란 과거 영어 교육이 영미문화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던 때에 가능했던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제 영어는 영미문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화를 포섭한다. 특히 모국어로 영어를 쓰는 아프리카 작가들의 등장은 영미권 문화가 영어의 전부가 아님을 보여준다. 따라서 그 동안 영어 원어민을 정의하려는 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다.

2. 원어민 영어강사 연구

영어교육에서 원어민의 활용은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므로 영어사용이 제한적인 환경(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EFL)에서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가운데 한 가지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교사들에 의한 영어 수업이 처음 시작된 것은 1966년이다. 미국 평화봉사단(Peace Corps)에 소속된 대학생들 2000여명이 전국의 중등학교는 물론 대학교 영문과 및 전문기관에 배치되어 일반학생들과 전문요원들의 영어 향상에 기여한 바 있다(배두분, 1990). 김정렬과 한희정(2009)은 각 학교에 원어민 강사를 배치하여 활용하는 것이 영어교육을 위한 여러 지원 방안 중 가장 획기적인 것이라 하였다.

이에 반해 몇몇 학자들은 영어교육에서의 ‘원어민 제일주의’에 의문을 제기하고 실제 영어교육에서 원어민의 활용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음을 연구 결과를 내세워 주장하였다(김순복, 1998; 박정숙, 1998; 신용진, 1999; 이병민, 2006; 임정완, 2009; Graddol, 2004; Phillipson, 1996). 특히 2008년 개정교육과정에는 영어를 ‘지구어(global language)’ 개념으로 받아들이며 ‘원어민(native speaker)’이 아닌 ‘문화간 화자(intercultural speaker)’ 사이에 통용되는 언어로 정의하였다. 이와 맥을 같이하여 Medgyes(1996)는 원어민과 비원어민은 언어교사로서의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쪽이나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동일하다고 하였다.

원어민 영어강사 관련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뉠 수 있다. 즉 학습자들의 동기, 자신감, 그리고 불안감 등의 정의적 영역과 관련된 연구와 영어의 네 가지 기능(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등 인지적 영역과 관련된 연구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원어민 강사가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살펴본 논문(연준흠, 1996; 이남숙, 1998; 임지인, 1996; 김경미, 이충현, 2005)들은 영어에 대한 흥미도, 영어학습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이 해소되고 영어 말하기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김영신(1995)도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원어민 강사의 수업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의사소통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게 하였고, 외국인과의 대화에 강한 동기 부여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고 하였다. 대학 수준에서 원어민 강사에 대한 인식 조사를 연구한 김창현(2009)은 원어민과 비원어민 강사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비교하였는데, 말하기와 쓰기 자신감이 뛰어난 학습자일수록 원어민을 선호한다는 것과 원어민 강사의 문제점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의 연구인 남정미(2011)는 대학생들이 원어민에 많이 노출되어 이전의 연구와는 달리 불안감이 많이 낮아졌으며, 학습동기와 불안감은 상관관계가 높지 않았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원어민 강사에 의한 수업에서 불안감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적지 않다. 김영숙(2005)은 한국인과 원어민 강사의 협동수업과 원어민 강사의 단독수업에서 초등학교 학습자가 느끼는 불안 정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원어민에 의한 단독 수업일 때 수업불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학생들이 원어민 강사의 지시나 설명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추현옥(2007)의 연구에서는 동료의 부정적 평가와 시험 불안의 측면에서는 원어민 수업이, 강사의 부정적 평가 측면에서는 비원어민의 수업이 더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신혜와 광병권(2002)은 원어민 단독수업에서는 학생 통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을 지적하였다. 또한 협동 수업 시 한국인 교사와의 문화적인 차이도 어려움으로 제시되었다.

한편으로, 원어민 강사 수업에서 학습자들의 인지적 능력의 변화를 살펴 본 연구들은 듣기, 말하기 및 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어민 강사를 활용한 수준별 수업이 초등학생의 듣기, 말하기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알아본 나기연과 경미란(2003)의 연구는 원어민 강사 활용수업은 학생들의 듣기와 말하기 능력 향상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정희(2001)는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강사와 내국인 영어교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연구 결과, 원어민 영어강사가 배치된 학교의 학생들이 원어민 영어강

사가 배치되는 많은 학교에 비해 영어 듣기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나은진(1997)은 중학생들 대상으로 역할 분담식 협력수업을 수행하였는데 이 연구 결과 또한 초등과 유사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명희(1998) 역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어민 강사와의 협력수업에 관한 실험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연구 결과, 학생들의 영어 듣기 능력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차은숙(2006)은 내국인 교사의 수업과 원어민과 내국인 교사의 교차 수업을 실험을 통해 비교 분석해 보았는데 연구 결과, 내국인 교사와 원어민 강사의 교차 수업 학습형태가 영어 듣기와 읽기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원어민 강사에 의한 수업이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연구 결과도 공존함을 알 수 있다. 고은하(2000)의 연구에서 원어민 강사와의 수업은 외국인과의 대화의 두려움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원어민의 빠른 언어구사로 인해 수업을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어 원어민과 한국인 영어교사의 공동지도를 원하는 초등학생들이 80%이상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박정숙(1998)과 신용진(1999)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원어민 영어강사의 수업은 학습자들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어 주지 못했다. 정광주(1998)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강사에 의해 수업을 받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전국 모의고사 외국어 영역을 3차례에 걸쳐 비교 분석해 보았는데 연구 결과, 듣기와 말하기 능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홍성심과 정양수(2006) 그리고 강상철과 김주후(2011)의 연구 역시 원어민 강사의 활용 수업이 기대만큼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 되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김순복(1998)의 연구는 원어민과 비원어민 영어 강사의 교육적 효과를 비교하였는데 연구 결과, 원어민 강사에 비해 한국인 영어 강사의 교수가 오히려 영어 교육에 더 긍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어민 강사 활용 수업은 정의적, 인지적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결과가 혼재하여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힘든 상황이다. 또한 대부분이 초등과 중등에서 원어민 강사에 관련된 연구가 주로 많이 이루어졌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강사에 의한 교육을 받는 대학생들의 입장에서 원어민 영어강사에 대한 그들의 기대와 현실은 어떠한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A광역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의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원어민 영어 강사에 대한 학생들의 일반적

인 만족도를 묻는 연구이므로, 가급적 다양한 전공과 학년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학생들의 영어 수준 및 선정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응답자의 주된 분포는 사범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많았으며, 특히 국어교육, 영어교육, 유아특수, 일반사회교육, 화학교육 전공의 학생들이 대거 참여했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285장으로 성별로는 남학생 87명, 여학생 169명으로서 여학생이 설문에 더 많이 참여하였다. 학년별로는 1학년 65명, 2학년 108명, 3학년 84명, 4학년 27명으로서 고학년 보다는 저학년에 해당되는 1, 2 학년 학생들이 더 많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이 대학교에서는 1학년에 교양필수로 영어회화(1)과 영어독해 또는 영어회화(2)를 두 과목 이상 수강을 해야만 하므로,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가 원어민 영어강사에게 최소 한 과목 이상은 수업을 받은 경험이 있다.

이 대학교에 재직 중인 원어민 영어 강사는 총 21명으로서 외국어교육센터에서 면접을 통해 공개 채용 되었으며,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 출신으로서 학사이상의 학력과 대학에서 최소3년 이상의 강의경력을 가지고 있다. 성비는 거의 절반이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강사 중40% 이상이 영어교육(TESOL) 자격증이나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20대에서 50대 후반에 걸쳐 다양한 연령 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주로 교양영어 강좌 중 대학교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의 영어회화(1)과 (2)를 가르치며, 더러는 비즈니스 영어를 가르치거나, 영어영문과나 영어교육과에서 영작문을 가르치고 있다. 이들의 영어회화 수업은 각 반에 최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수준이나 전공별로 분반을 하지 않아서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과 다른 수준의 학생들이 같은 수업에 참여하였다. 수업목표는 학생들의 영어회화 구사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며, 수업은 교재를 중심으로 한다.

2. 도구 및 절차

본 연구의 도구로 사용된 설문지는 권미분(2011)의 연구를 참조하여 총19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지(부록 참조)는 영어 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6문항)과 함께 원어민 영어강사들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와 기대 및 희망 사항(13문항)에 관한 것이었다. 원어민 영어 강사에 대한 설문 문항은 Likert scale을 사용하여 ‘매우 그렇다’(5점) 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로 하였으며 설문문항 내용에 따라 코딩 또는 역코딩을 사용하였다. 설문 결과는 EXCEL 프로그램에 입력되었고 SPSS를 통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이 이루어졌다. 본 설문지에 사용된 19개의 설문 문항 중 원어민 영어 강사 수업의 만족도에 대한 12문항에 대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0.711의 분포로 조사되어 전체적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IV. 연구 결과

1. 영어 학습 현황

설문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영어 학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총 6 문항의 설문문이 실시 되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영어 학습의 주된 목적’을 묻는 질문에는 아래 그림 1과 같이 ‘취업대비’ 라고 답한 응답 비율은 40.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교과목 및 학점관리’가 23.5%, ‘교양증진’이라는 응답은 16.8%로 조사되었고, ‘영어권 문화에 관심’이라는 답변은 13.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을 해야 하는 현실에 대처하기 위한 것과 대다수 사범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졸업 학점이 150학점으로 많은 학점을 요구 받고 있으며, 부전공과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 사범대학생들이 학점관리를 위해 영어공부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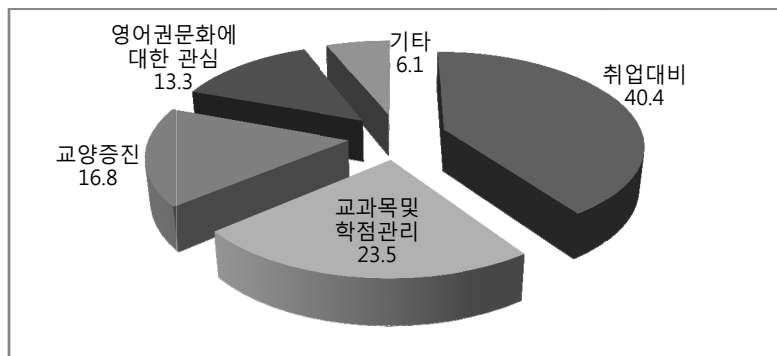


그림 1 영어 학습의 주된 목적

두 번째, ‘학교 수업 이외에 주로 어떤 방법으로 영어공부를 하고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아래 그림 2에서와 같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시간이 없어 따로 영어공부 하지 않는다(54%)’라고 답하였다. 이는 사범대학 교과과정 및 이수학점 시수가 다른 단과대학에 비해 다소 과중하여 학생들이 영어 자체에만 따로 시간을 투자하기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음에 기인된 결과일 수도 있다.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은 ‘개인적으로 책을 사서 공부한다(29.1%)’로 파악되었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여 영어 학습을 한다’라는 응답은 6.7%로 낮게 나타났다. 물리적, 시간적, 경제적 여건을 필요로 하는 ‘영어학원 수강(4.2%)’은 가장 적은 응답이 나왔다. 이는 학기 중에 방과 전, 후 시간을 활용하여 학원으로 수강을 하러 다니기에는 물리적으로 거리가 너무 먼 지방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이 처한 환경적 열악함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학생들이 교내

에서 더욱 자유롭게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는데, 시,공간 및 경제적인 면에서 비교적 제약이 없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는 지도가 향후 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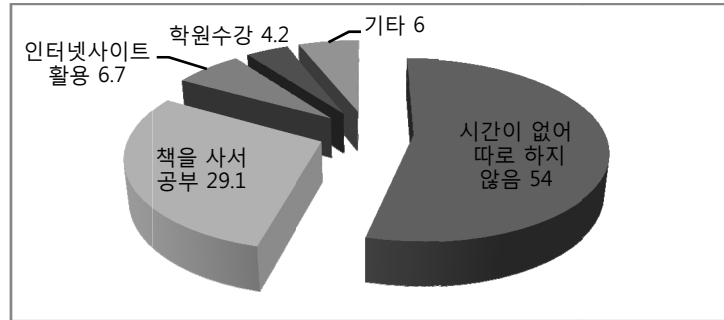


그림 2 영어 학습 방법

세 번째, ‘영어 학습에 있어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분야 하나를 꼽는다면?’이라는 질문에는 그림 3에서와 같이 응답자의 44.9%가 ‘말하기’를 꼽았고, 다음으로 ‘문법 21.1%’, ‘작문 14%’, ‘듣기 12.6%’, ‘읽기 7.4%’ 순이었다. 이는 대 학수학능력시험에서 주로 다루는 읽기와 듣기 위주의 학습을 해 온 결과 말하기와 쓰기 영역 부분은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독해 위주의 입시에서 문법을 전문적으로 학습하지 않아 왔기 때문인지, 학생들이 문법에 대해서 여전히 어렵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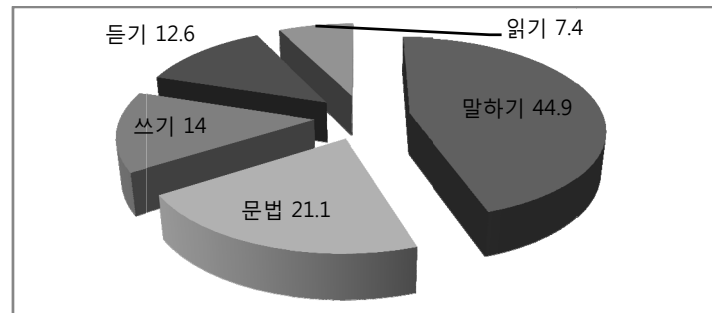


그림 3 영어 학습 어려움 분야

네 번째, 영어회화 수업을 하는데 있어 분반 당 적정 인원을 묻는 항목에는 그림 4에서와 같이 응답자의 41.4%가 ‘10명 미만’이라고 답하였고 ‘10명 내외’라고 답한 응답도 38.2%나 되었다. 또한 ‘20명 내외’라고 대답한 학생들은 16.1%에 해당되었다. 현재 분반당 30여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어회화 수업에 대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현 수준의 분반당 인원 불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즉, 학생들이 20명 미만이 영어회화 수업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약 80%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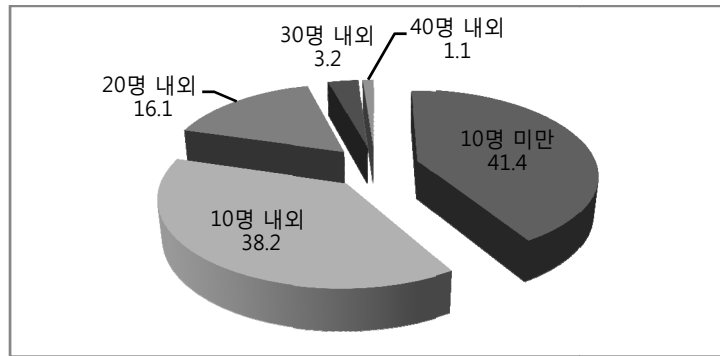


그림 4 분반당 적정 인원

다섯 번째, 향후 본교에서 영어교육과 관련된 바람직한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그림 5와 같이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영어 관련 과목을 더 늘려야 한다 (55.8%)’는 응답을 하였고,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37.2%)’는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을 가져 왔으며, ‘영어 관련 과목을 축소시켜야 하겠다(7%)’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 이는 현재의 영어 관련 과목이 충분히 개설되고 있지 않으며, 영어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영어교양 과목에 대한 수요가 많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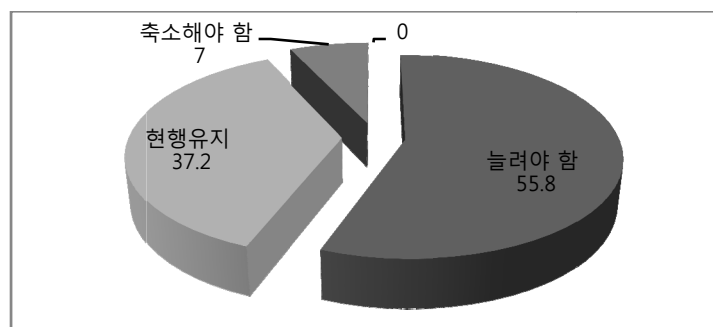


그림 5 향후 영어교육 방향

여섯 번째, ‘원어민 영어강사가 갖추어야 할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는다면?’이란 질문에는 그림 6에서와 같이 ‘훌륭한 교수법’이 47.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한국 학생들에 대한 이해’라는 응답도 40.7%로

중요시 되었으며, ‘성실성(5.5%)’, ‘기타(3.6%)’ 그리고 ‘훌륭한 영어발음(2.5%)’ 순이었다. 가장 적은 응답으로 조사된 훌륭한 영어 발음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중요도에서는 크게 중요시 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은 ‘훌륭한 교수법’을 갖춘 원어민 영어강사와 한국 학생들을 잘 이해하고 인간적인 면에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원어민 영어강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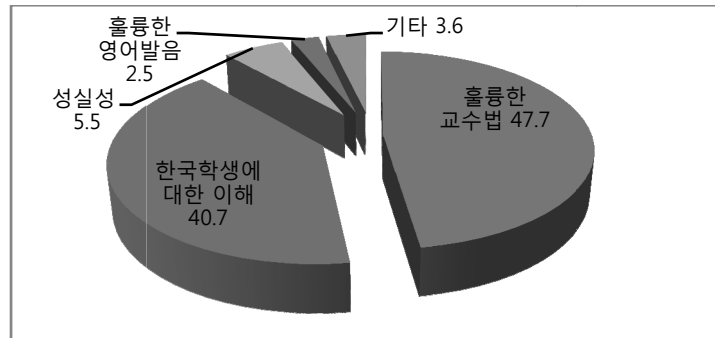


그림 6 원어민 영어강사 자질

2. 원어민 영어강사에 대한 만족도

대학생들이 원어민 영어강사의 수업을 통해 느낀 바를 다음 표 1에 나타난 12문항을 통해 5단위 척도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다른 항목과 비교하여 평균 수치가 높게 나타난 항목은 ‘수업 결손이 없고 강의 시간을 잘 준수한다(M=4.03)’와, ‘학생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 공평하게 대한다(M=3.73)’ ‘수업 후에도 언제든지 질문이나 상담을 받아준다(M=3.65)’ 정도였다.

반면에, 평균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항목은 ‘한국말을 할 줄 안다(M=2.92)’, 적절한 평가방법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촉진시킨다(M=3.12)’, ‘학생들의 흥미나 수준에 맞는 교재를 수업시간에 활용한다(M=3.17)’, ‘영어 능력 향상에 전반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다(M=3.26)’ 등 이었다. 이는 학생들이 원어민 영어강사들에 대해 수업 결손 및 강의 시간 준수와 학생과의 관계에 대한 외형적인 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에 교재나 평가 방법, 한국어 구사능력과 같은 실질적인 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원어민 영어강사에 대한 평가

문항	내용 (본교 원어민 영어강사는...)	평균	표준편차
1	학생들의 요구를 잘 수용한다.	3.39	1.00
2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교류를 가진다.	3.47	1.08
3	학생들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3.49	.97
4	우리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3.45	.94
5	학생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 공평하게 대한다.	3.73	1.03
6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하여 수업을 재미있게 이끈다.	3.41	1.07
7	영어 능력 향상에 전반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다.	3.26	2.21
8	수업 결손이 없고 강의 시간을 잘 준수한다.	4.03	1.07
9	학생들의 흥미나 수준에 맞는 교재를 수업시간에 활용한 다.	3.17	1.04
10	적절한 평가방법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촉진시 킨다.	3.12	1.01
11	한국말을 할 줄 안다.	2.92	1.04
12	수업 후에도 언제든지 질문이나 상담을 받아준다.	3.65	1.09

마지막으로, 개방형 질문인 ‘원어민 영어강사 수업에서 특별히 희망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을 묻는 설문에 전체 참여자 중 124명이 응답을 하였고, 이 중 가장 많이 공통으로 언급된 의견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설문 결과 나타난 원어민 영어 강사의 수업에 대한 희망 사항을 정리해 보면, 객관식 설문 조사의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원어민 영어강사 수업 희망 사항

순위	내용	N	백분율
1	좀 더 말하기 위주의 수업을 해 주면 좋겠다.	24	19.3
2	학생의 수준 차를 고려한 수업방식이 필요하다.	23	18.5
3	더 많은 강좌가 필요하다.	17	13.7
4	기본적인 간단한 한국어 구사능력을 갖추면 좋겠다.	16	12.9
4	한국 문화와 한국학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16	12.9
5	한국학생들과의 정서적 및 상호작용 증진 필요하다	6	4.8
6	문법이나 단순한 지식평가보다는 실생활에서 활용 가 능한 수준을 평가 준거로 정해서 평가하면 좋겠다.	6	4.8
7	좀 더 다양한 수업 방식이 필요하다.	5	4.0
8	좀 더 흥미와 수준에 맞는 교재를 선택해야 한다.	4	3.2

학생들은 앞서 객관식 설문에서 영어 학습 시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조사된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해 원어민 영어 강사와의 수업에서는 회화를 위주로 한 수업을 원하고 있었으며, 강사의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학생과의 상호 작용을 수반하는 회화 수업을 원하고 있었다. 또한 학생의 수준 차를 고려한 더 많은 강좌의 개설을 원하고 있었으며, 본인들이 영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원어민 영어 강사가 학생들의 모국어인 한국어를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보유하고 있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원어민 영어 강사들이 한국문화를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수업 방식과 수준에 적합한 교재 선택의 중요성도 학생들이 원어민 영어 강사 수업에서 희망하는 개선사항이었으며, 실질적인 영어실력의 향상을 위한 평가 기준의 개발을 제안하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오늘날 세계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영어교육 전문성 신장은 필수적이다. 의사소통 중심 수업에 대한 필요와 강조에 따라 원어민 영어강사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고, 원어민 강사가 영어교육에 효과적이라는 인식으로 이어져 대학 영어교육 현장에 수많은 원어민 강사가 투입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김신혜, 2010). 그러나 대다수의 원어민 영어 강사에 대한 연구는 초등과 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원어민 영어 강사에 관한 것(고은하, 2000; 김경미, 이충현; 2005; 김영숙, 2005; 나기연, 경미란, 2003; 이남숙, 1998; 임지인, 1996; 윤유진, 2008; 정광주, 1998)으로 대학 수준의 원어민 영어 강사에 대한 연구(김순복, 1998; 김창현, 2009; 권미분, 2011; 남정미, 2011)는 상대적으로 적은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보완해 보기 위해 본 연구는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의 영어 교육 학습 현실과 원어민 영어 강사와 관련하여 느끼는 만족도와 기대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영어 학습 현실은 영어학습의 주된 목적은 취업대비가 가장 많았으며, 시간이 없어서 따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과반수가 넘었고, 영어 학습 시 가장 어려운 영역으로 조사된 것은 말하기 부분이었고, 영어회화의 적정 인원은 10명 내외를 선호하였고, 영어교육 관련 강좌가 더 늘어나야 하며, 원어민 영어 강사가 갖추어야 할 요인으로는 훌륭한 교수법을 꼽았다.

원어민 영어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은 ‘수업 결손이 없고 강의 시간을 잘 준수한다’, ‘학생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 공평하게 대한다’, ‘수업 후에도 언제든지 질문이나 상담을 받아준다’ 였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은 가르치는 학생의 모국어인 ‘한국말을 할 줄 안다’, ‘적절한 평가방법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촉진시킨다’, ‘학생들의 흥미나 수준에 맞는 교재

를 수업시간에 활용한다', '영어 능력 향상에 전반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다' 등이었다. 이러한 객관식 설문은 주관식 설문보다 응답과 대체로 일치함을 보여 주었다. 즉 주관식 설문에서 가장 많은 희망사항으로 조사된 것은 학생들의 말하기 능력 향상에 대한 관심으로 보다 '회화' 위주의 수업을 받기를 선호하였고, 학생의 수준 차를 고려한 수업 방식, 더 많은 영어 관련 강좌의 개설과 기본적인 한국어 구사 능력과 한국의 문화와 학생에 대한 이해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11년 12월 서울시교육청은 한 설문조사를 통해 학부모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영어교사는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보다는 실력이 뛰어나고 수업을 잘하는 한국인 교사라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어 원어민 교사 예산을 삭감하여 고등학교는 올해 2학기부터 원어민 교사제를 전면 폐지하고, 초·중학교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발표했다(한국시정신문, 2011). 서울시교육청의 이러한 발표는 전국으로 파급될 것이 예상되며, 또한 대학에서의 원어민 영어 강사의 활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이는 EFL 환경에서는 더 이상 원어민 영어 강사만이 최상의 이상적인 교수자가 아니라는 인식이 서서히 부각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원어민 영어 강사와 학습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부재가 학습자의 영어구사능력의 부족뿐만 아니라 원어민 영어 강사의 한국어 구사능력의 부족과 한국 학생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라면, 대학에서는 원어민 영어 강사들을 위한 정기적 세미나 형식의 교육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 한국 학생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수준별 교수법에 대한 지도 및 평가 방법 등을 교육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원어민 강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회화위주의 수업을 선호하는 학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수준별로 나뉜 소규모(20명 미만)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도움되도록, 수업 환경을 양적 질적으로 개선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특정 한 개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무리가 따를 수 있고, 대학생들의 원어민 강사 수업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하였기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인이 이러한 만족도와 상관관계를 갖게 되는지는 밝히고 있지 못하는 점이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원어민 강사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학생들의 영어 수준, 학습 스타일, 또는 동기 등과 같은 세부적인 요인들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좀 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 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토대로 향후 대학 수준에서 보다 체계적인 원어민 영어 강사의 활용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고대해 본다. 또한 차후 원어민 영어 강사에 대한 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영어교육 프로그램이 보다 내실화 되어서 학생들에게 영어 의사소통능력 배양을 가져다 주는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강상철, 김주후. (2011). 고등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 효과 분석 및 개선 방안. *현대영어교육*, 12(2), 49-73.
- 고은하. (2000). 원어민 교사의 실제 수업과 그 효과. *English Linguistic Science*, 5(1), 1-11.
- 권미분. (2007). 대학 원어민 영어 강사의 자질에 관한 연구. *영어학*, 7(3), 411-436.
- 권미분. (2011). 관광영어 수업에 있어서 원어민 교수의 자질과 학생들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23(1), 591-607.
- 김경미, 이충현. (2005). 영어 협동 수업이 초등학생의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과 효율적인 협동수업의 방향. *초등영어교육*, 11(2), 133-171.
- 김순복. (1998). 원어민과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교육적 효과상의 차이와 그 제언.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3(1), 87-99.
- 김신혜. (2010). 효과적인 영어교수법, 성공적인 영어학습자에 관한 오해와 진실. *인문학 연구*, 43, 7-32.
- 김신혜, 박병권. (2002). 원어민 교사 프로그램이 고등학교 영어 교육에 미치는 영향. *Foreign Languages Education*, 9(3), 211-241.
- 김영숙. (2005). *원어민 교사와의 협력수업이 학습자의 듣기능력 및 영어 불안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김영신. (1995). *원어민/비원어민 교사가 외국어 학습자의 태도/동기와 성취도와 의 상관관계 양상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렬, 한희정. (2009).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 수업이 학습자의 수준별 영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정평가연구*, 12(2), 125-144.
- 김창현. (2009). *원어민과 비원어민 영어강사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나기연, 경미란. (2003). 초등영어교육에서 영어 원어민을 활용한 수준별 수업의 효과.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8(1), 131-152.
- 나은진. (1997).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통한 원어민 보조교사와의 역할 분담식 수업모델 연구. *영어교육연구*, 6(2), 165-172.
- 남정미. (2011). 원어민 영어수업에서 느끼는 학습동기, 불안감. *영어어문교육*, 17(2), 139-160.
- 박정숙. (1998). 영어교육현장에서 원어민 교사의 수업 스타일과 한국 중고생 학생들의 학습 스타일은 일치한가? *외국어교육*, 5, 133-153.
- 배두분. (1990). *영어교육학*. 서울: 한신문화사.
- 신용진. (1999). 초등학생의 학습양식에 따른 영어교육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외국어교육*, 6, 169-195.
- 연준흠. (1996). 원어민과 협동수업을 통한 의사소통능력 향상 방안. *영어어문교*

- 육, 2(3), 56-80.
- 윤유진. (2008). 영어 원어민 강사 운영 실태 및 직무 만족도 연구: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현대영어교육*, 9(3), 152-188.
- 이남숙. (1998). *협동 수업을 통한 원어민 보조교사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충청북도.
- 이병민. (2006). 영어교육, 어떤 새로운 옷을 입혀야 할 것인가? *안과밖*, 21, 281-298.
- 이명희. (1998). *원어민 영어교사와의 협동수업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서울.
- 이정희. (2001).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이 중학교 영어교육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충청남도.
- 임정완. (2009). 거시와 미시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영어 공교육 발전 방안. *외국학 연구*, 13(2), 29-51.
- 임지인. (1996). *원어민 교사가 학생들이 정의적 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서울.
- 정광주. (1998). *원어민 교사의 실제 수업과 그 효과*. 석사학위논문, 창원원대학교, 마산.
- 차은숙. (2006). *내국인과 원어민 교사의 교차수업이 초등학생의 영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추현욱. (2007). *원어민/비원어민 교사의 수업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언어불안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한국시정신문. (2011). *서울시, 2012년 2학기부터 영어 원어민교사 점진적 축소*. <http://www.sijeong.com/news/service/article/> 에서 2012년 1월 31일 검색.
- 홍성심, 정양수. (2006). 효과적인 영어교육을 위한 원어민 영어 교사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연구. *현대영어영문학*, 50(3), 137-164.
- Graddol, D. (2004). *The future of English*. Council's Going Global Conference on International Education, Edingburgh.
- Medgyes, P. (1994). *The non-native teacher*. NY: MacMillan Publishers.
- Medgyes, P. (1996). Native or non-native: Who's worth more? In T. Hedge & N. Whitney (Eds.), *Power, pedagogy & practice* (pp. 31-42).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hillipson, R. (1996). ELT: The native speakers' burden. In T. Hedge & N. Whitney (Eds.), *Power, pedagogy & practice* (pp. 23-3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ichards, J. C., Platt, J., & Platt, H. (1993). *Dictionary of language teaching & Applied linguistics*. NY: Longman.

부록

본 설문지는 우리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원어민 영어강사에 대한 기대와 현실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사항에 동그라미 해 주세요. 성실한 응답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별: 남 / 여 학년: 1학년/2학년/3학년/4학년 전공: _____

1. 귀하의 영어학습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 1) 영어권 문화에 대한 관심
- 2) 취업 대비
- 3) 교과목 및 학점 관리
- 4) 교양 증진
- 5) 기타(구체적 이유를 적어주세요: _____)

2. 학교수업 이외에 주로 어떤 방법으로 영어공부를 하고 있나요?

- 1) 시간이 없어서 따로 하지 않는다.
- 2) 영어학원 수강
- 3) 개인적으로 책을 사서 공부한다.
- 4)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여 공부한다.
- 5) 기타(구체적 방법을 적어주세요: _____)

3. 영어학습에 있어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분야 하나를 꼽는다면?

- 1) 듣기
- 2) 말하기
- 3) 읽기(어휘포함)
- 4) 쓰기
- 5) 문법

4. 본교 영어회화 수업의 적정 인원은 몇 명 정도가 좋다고 봅니까?

- 1) 10명 미만
- 2) 10명 내외
- 3) 20명 내외
- 4) 30명 내외
- 5) 40명 내외

5. 향후 본교에서 영어교육과 관련된 바람직한 방향은 어떠해야 한다고 봅니까?

- 1)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 2) 영어관련 과목을 더 늘려야 한다.

3) 영어관련 과목을 축소시켜야 한다.

6. 원어민 영어강사가 갖추어야 할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한가지를 꼽는다면?

- 1) 훌륭한 영어발음
- 2) 훌륭한 교수법
- 3) 한국 학생들에 대한 이해
- 4) 성실성
- 5) 기타(_____)

5: 매우 그렇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7. 본교 원어민 영어강사는...

- | | | | | | |
|--------------------------------------|---|---|---|---|---|
| 1) 학생들의 요구를 잘 수용한다. | 5 | 4 | 3 | 2 | 1 |
| 2)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교류를 가진다. | 5 | 4 | 3 | 2 | 1 |
| 3) 학생들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 5 | 4 | 3 | 2 | 1 |
| 4) 우리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 5 | 4 | 3 | 2 | 1 |
| 5) 학생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 공평하게 대한다. | 5 | 4 | 3 | 2 | 1 |
| 6)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하여 수업을 재미있게 이끈다. | 5 | 4 | 3 | 2 | 1 |
| 7) 영어 능력 향상에 전반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다. | 5 | 4 | 3 | 2 | 1 |
| 8) 수업 결손이 없고 강의 시간을 잘 준수한다. | 5 | 4 | 3 | 2 | 1 |
| 9) 학생들의 흥미나 수준에 맞는 교재를 수업시간에 활용한다. | 5 | 4 | 3 | 2 | 1 |
| 10) 적절한 평가방법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촉진시킨다. | 5 | 4 | 3 | 2 | 1 |
| 11) 한국말을 할 줄 안다. | 5 | 4 | 3 | 2 | 1 |
| 12) 수업 후에도 언제든지 질문이나 상담을 받아준다. | 5 | 4 | 3 | 2 | 1 |

8. 원어민 영어강사 수업에서 특별히 희망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 한가지를 적어주세요.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tion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Post secondary

임정완

대구대학교 영어교육과

712-714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Tel: (053) 850-4125/H.P.: 010-8983-0426

Email: jwlim@daegu.ac.kr

Received 19 December 2011

Revised 4 February 2012

Accepted 15 February 2012